

AIDS,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제 우리 나라도 더 이상 에이즈 안전지대가 아니다. 작년에만 해도 333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52%가 급증한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에이즈가 급증한 것은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대부분에 에이즈 감염이 은밀한 성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의 지름길이다.

• 에이즈란 무엇인가?

AIDS(에이즈)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어(略語)로 우리말로는 “후천성 면역결핍증(後天性免疫缺乏症)”이라고 한다. 에이즈 바이러스 “인면역결핍바이러스” 즉 HIV가 인간의 면역을 결핍시켜 본래 보통상태에서는 증식할 수 없는 각종 미생물의 체내증식을 허용함으로써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 총칭을 의미한다.

• 에이즈 바이러스는 언제 발견되었나?

에이즈로 이름 붙여진 최초의 보고는 1981년 6월 5일에 UCLA(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분교)의 M.S. 고트리이프박사에 의하여 MMWR(질병 및 사망 주보)라는 잡지에 게재된 것이다.

이 환자들은 건강한 보통의 성인에서는 볼 수 없는 “카리니”라는 폐에 증식하는 원충(原蟲)이 일으키는 폐렴 증상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

었다.

그로부터 불과 1개월후 같은 잡지의 7월 3일호에는 1979년 1월부터 '81년 7월까지 사이에 극히 드문 “카포씨 육종(肉腫)”이라는 노인에게서 많은 피부의 악성 종양의 일종이 무려 26이나 보고되었다는 기사가 실렸고, 환자는 모두 같은 남성 동성연애자들이었다.

그 후에 주사기에 의한 이른바 “들러가며 맞기”를 하는 마약 흡수자, 1982년에는 혈우병(血友病)으로 혈액응고인자 체제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같은 종류의 면역계통 결핍으로 야기되는 중증(重症)의 감염증이 발견되었으며, 또 여성환자도 발견되었고,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남녀가 같은 비율로 감염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983년 5월 프랑스의 L. 몽타니에 교수 등(파스퇴르연구소)이 환자의 임파종에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분리하였고, 그후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 하여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즉 “인면역결핍바이러스”라고 명명되었다.

• 항체미형성기간이란?

항체미형성기간(Window Period)이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의 기간을 항체미형성기간이라고 하며, 감염 후 보통 6~12주 정도가 소요된다.

에이즈 검사는 전세계 공통으로

항체검사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라 하더라도 항체미형성기간 동안에 현혈한 경우에는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각 보건소나 병, 의원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위험한 행위를 한 후 3개월 이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정확하다.

• 에이즈 감염경로는?

HIV의 감염원으로서 중요한 것은 혈액, 정액, 질분비액이다. 따라서 HIV는 주로 성행위 및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고, 드물게 모자감염(수직감염)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침, 눈물, 땀에 의한 감염이나 곤충 매개감염은 없다.

<HIV-1 감염경로별 감염율>

감염경로	감염율(100번 감염 위험률 노출)
남성이 여성에게 감염시키는 경우 (콘돔없이 일반적인 질성관계)	0.1~0.2
여성이 남성에게 감염시키는 경우 (콘돔없이 일반적인 질성관계)	0.033~0.1
남성이 남성(여성역할)에게 감염시키는 경우 (콘돔없이 일반적인 항문성관계)	0.5~3.0
주사기 공유	0.3
모자감염	13~48
수혈	90~100

*출처: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Confronting AIDS"

• 에이즈 바이러스는 공기나 수 중에서 얼마나 생존이 가능한가?

에이즈 바이러스(HIV)는 침입한 임파구속에서는 물론, 임파구 주위의 혈청이나 체액속에서도 감염



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공기가 건조하여 혈액이나 체액이 바짝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활성이 급속도로 떨어져 공기 감염은 전혀 있을 수 없다.

보통의 수도물에는 소독을 위한 염소가 용해되어 있으므로 차아염소산에 의한(0.5%에서 10분) HIV는 단시간에 활성을 잃는다고 보며, 또 수영장이나 욕조에서는 대량의 물로 희석되기 때문에 B형 간염바이러스의 감염력보다 감염력이 약한 HIV는 감염력이 없다.

또 입을 통한음식물에 의한 감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30℃의 실온에서 혈청이나 체액이 건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 속에 있는 HIV가 수일간 생존해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몸에 묻은 혈액이나 체액을 제거하지 않으면 감염 가능성이 있다. 즉시 대량의 흐르는 물로 강력하게 씻어 내리면 감염에 이르는 일은 없으며 비누나 소독액을 사용하면 더욱 좋다.

• 키스로도 감염될 수 있을까?

일반 건강한 감염인의 침 등의 분비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입안에 작은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키스를 통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특히 깊은 키스는 위험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구강성교로도 감염될까?

정확한 위험성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위험한, 항문 또는 질 성관계(콘돔 미사용 등)보다는 감염될 확률이 훨씬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성의 성기에 구강성교를 할 경우

바이러스가 정액, 사정전 분비물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HIV 바이러스가 구강내의 세포를 통해 림프절이나 혈액내로 침투할 수 있다.

구강성교의 위험성은 구강성교를 하는 사람의 구강 내 혹은 목구멍 안에 상처가 있을 경우 더 높아진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강성교를 받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구강 내의 혈액이 당신의 요도나 질, 항문, 혹은 신체에 있는 상처나 피부가 헉 곳을 통해 HIV가 들어갈 수 있다.

• 항문성교는 위험한가?

질성교보다 항문성교로 전염되는 확률이 높다. 또 항문성교를 받는 쪽이 하는 쪽보다 더 위험하다.

여기서 항문성교라 하면 감염된 남성이 여성이나 남성의 항문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삽입하여 상대방의 직장내에 사정을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남성의 감염된 정액이 감염되지 않는 상대방의 직장내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여성역할을 하는 쪽이 이미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남성역할을 하는 쪽은 감염되지 않았을 때는 같은 상황에서 남성의 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항문성교로 인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윤활제의 사용이 권장된다. 윤활제는 콘돔 파열과 항문의 상처를 줄일 수 있다.

• 감염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은 ?

감염 후 2~8주에 일부 사람에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어느

경우이든지 2~3주안에 없어진다.

이들 증상은 다른 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며, 그 출현만으로 HIV 감염을 의심 하기는 곤란하다. 이 증상은 HIV 급성감염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체내에 들어온 HIV가 혈액 속에서 확산되는데 나타나는 통상적인 증상이다.

이 HIV의 증가는 면역력에 의해 억제되어 증상이 없어진다. 항체는 이 증상의 소실 후 수주만에 검출된다.

* 에이즈 발병 후의 증상은?

감염 후 평균 12년 정도가 지나면 주로 기회성감염, 기회성종양, 신경증상 등이 나온다. 체력의 소모나 직접 사인이 되는 중요한 것으로는 지속적인 설사와 폐렴 그리고 뇌종이다. 또한 소화기, 폐, 뇌, 피부 및 눈을 위시한 온갖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 현황은?

에이즈 총 감염자수가 2002년 3월 말 현재 1,686명으로 나왔으며 감염자 1,686명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된 1,399명중 1,357명(96.9%)이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나머지는 현재 역학조사중이거나 감염경로가 불명자임) 수혈 또는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자수는 총 38명이었고('96년도 이후 추가 감염자 없음) 수직감염자수는 2명으로 확인되었다. [Z]

(국립보건원 방역과 자료제공)